

# 건축형태구성에 있어 환원성 원리와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 of composition and principle of reduction in Architectural Composition

이승우\* / Lee, Seung-W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orm of composition and principle of reduction in architectural composition. Theoretical category is to find reduction system with the connection between idea of society and tradition in compositional fram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it is appeared the mimesis of style. The mimesis of style is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between Greek Style or Roman Style and Gothic Revival or Renaissance Revival. Second, it is the reduction of primitive of form. It is divided with mimesis of nature and reduction of primitive hut. Like Laugier the former find the architectural prototype, the latter is convinced of simplicity, purity of nature with us.

**키워드** : 환원성, 양식 복고, 원시주의, 원형

## 1. 서론

사물의 형태는 그 자체가 가진 시지각적 형상이며, 그러한 형상은 구성하는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 구성체계가 지배한다.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체계는 그 건축자체가 가지게 될 내적 혹은 외적 원리에 의해 요소를 질서화하는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결정하는 건축가들은 크게 진보적 진화를 추구하는 기술지향적 관점과 주기적인 반복을 통한 진화, 혹은 이것이 적절히 혼합되어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주기적 반복의 의미는 바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바자리(Vasari)는 예술 디자인은 우리의 실체에서 보이는 성질과 유사하며, 신체와 같이 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기를 거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의미에서 형태구성상의 환원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형태에서의 어떤 인식 구조를 가지며, 어떤 원리로 질서를 내재하는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 건축 이론과 관련된 사고원리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건축형태의 구성원리는 특히 그 시대 정신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론적 범주는 사회적 이념과 전통과 연결고리에서 환원성이라는 구성체계를 연구하였고, 건축 이론가들의 저서와 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표현에 관한 분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고대 환원이라는 이상을 실현

한 르네상스시기와 바로크 시기를 주대상으로 하였다.

## 2. 환원의 의미와 예술적 성향

### 2.1. 예술적 측면에서 환원의 의미

환원(reduction)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 또는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환원한다는 것은 인식 상에서 과거로의 회귀 즉 돌아감을 뜻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인식상의 회귀와 함께 형태적인 모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우선 연역과는 달리, 내포적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논리적 추리를 의미하는 환원은 인식적 환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고, 여기서 원초적 형식의 환원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모토가 그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sup>1)</sup>

두 번째는 형태적 모방 혹은 미메시스<sup>2)</sup>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방 역시 두 가지, 즉 자연의 모방<sup>3)</sup>과 고대의 모방으로 나뉘어진

1) 콜링우드는 원형과의 닮음으로서 사실적 재현(representation literal)이기 보다는, 원형에 의해 환기된 느낌과 유사한 정서적 재현(emotional representational)을 재현적 예술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재현의 세 가지 등급을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Collingwood, R. G., 상상과 표현(The Principles of Art), 김혜련역, 도서출판 고려원, 1996, pp.71-75.

2) 미메시스는 모방 또는 재현적 제시의 의미로서, miméomai에서 연유된 말이다.

3) 자연의 모방이라는 사상은 데오크리토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상화

\* 정희원,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공학박사

다.4) 이러한 자연의 모방에서 자연이란 실물을 의미하며, 이것을 꼭 닮게 만드는 것은 고대부터 예술의 필수조건이었다.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는 원형의 모방이다. 그는 주요저서 '국가'에서 목수나 화가나 작가가 모두가 집을 짓지만, 목수의 집에 비교해서 화가나 작가의 집은 허구이며, 이것을 가상이라 하여 예술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을 플라톤으로부터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오히려 예술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5) 고대의 모방(mimesis)이란 고전주의 미학의 중추를 이루는 사고방식으로, 완성된 예술작품에 대한 동경이 모방을 창작규범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 2.2. 르네상스 시기의 환원적 성향

르네상스 시기의 그 첫 번째 특징은 고대 규범으로의 회귀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대 비트루비우스로의 회귀이다. 이것은 진보에 대한 그들의 열망보다도 더 권위있는 이론적 창조의 모태였다. 이 시기는 건축의 권위있는 소리, 연구의 목표, 의무적인 참고로서 비트루비우스 이론은 보편적인 신조로서 받아들여졌다.6)

비트루비우스의 논문은 역사성과 동시대성의 역할을 고수하였다. 이것은 서양건축역사의 기초를 통합시켰고, 계속적인 진전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는 고대 흔적에 대한 연구를 재건할 수 있는 규범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고고학적 작품과 인본주의자를 연결하는 변증법으로부터 얻은 결과이고, 고고학자였던 알베르티에 의해 시작된 고대 폐허의 실측은 건축적 훈련과 실습의 한 부분이 되었다.7)

비트루비우스 연구는 플라톤 연구와 같은 주제로 해석되었고, 建築十書는 풍부한 모호함과 수수께끼를 가지고 자유 예술과 기술 예술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방법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나 음악, 문법과 같은 '기술도 역시 자연을 모방하여 이런 것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 위서 '우주론'의 말이라든지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사람의 자연적인 본질(physis)과 닮고 있다'고 한 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모방적 재현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표현이념과 추상적인 예술을 경험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미메시스 사상은 창작이나 추체함으로써의 향수이념(享受理念) 또는 예술 분류의 원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p.5883.

4) 다른 관점으로 모방이라는 3가지 즉 자연의 모방, 이념 또는 이상(이데아)의 모방, 다른 예술작품의 모방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스즈키 히로유키, 건축의 7가지 힘, 양상호역, 도서출판 국제, 1999, pp.137-138.

5)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11권,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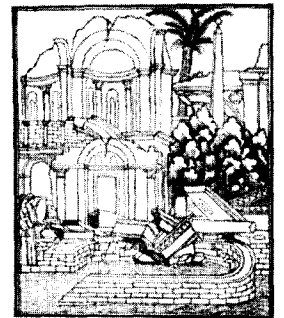
6) 팔라디오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의 스승이자 안내자는 비트루비우스이다'라고 하였다. Palladio, Andrea, The Four Books of Architecture(1570), Issac Ware, Dover Publications, 1975, 서문. 또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심서를 주석 혹은 번역한 르네상스 이론가들을 살펴보면, Giovanni Sulpicio, Fra Giocondo, Fabio Calvo, Cesare Cesariano, Francesco Lutio of Castel Durante(Durantino), Giovanni Battista Caporali, Antonio da Sangallo the younger, Cardinal Bernardino Maffei, Guillaume Philander, Vignola, Claudio Tolomei, Walther Ryff(Rivius, 독), Giovanni Battista Bertani, Giovanantonio Rusconi 등을 들 수 있다.

7) Choay, Françoise, The Rule and the Model, The MIT Press, 1997, pp. 182-183.

따라서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비트루비우스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고대건축물과 유적의 직접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 이론을 수정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비트루비우스의 텍스트에 대한 호기심과 그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대한 증명으로서 絶對價値를 相對價値로 바꾸었다. 還元的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쇠를 제고한 이 책은 현대까지도 건축이론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8)

이러한 부류 가운데 특히 세를리오(Sebastiano Serlio, 1475-1553)는 그의 건축 이론서9)를 통해서 비트루비우스에 모든 것을 의지했고, 그를 따르지 않는 로마 건축가들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지금의 건축가가 한 둘의 고대건축을 표본으로 삼았다하여 그가 잘못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여기서 잘못했다 함은 비트루비우스의 법칙을 어겼다는 뜻이다).... 이성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비트루비우스의 가르침을 확실한 규칙과 길잡이로 삼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10)라고 피력하였다.

둘째로 이러한 환원의 의미에서 고대의 폐허에 대한 상상적 재해석이다. 르네상스시기에 특히 미학적 견해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있는데, 프라 프란체스코 콜로나의 소설인 폴리필루스의 광기어린 사랑의 꿈(Hypnerotomachia Poliphili)11)이다. 콜로나는 고대에 대한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알베르티와 같은 인본주의자들과는 다른데, 그는 고대의 유적과 지식에 대한 세부적인 정확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상상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예로서 그는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12)에 있는 마우솔로스의 묘에 관해 고대에 기록해 놓은 자료에 입각하여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켜 놓았다.13) <그림 1> 그는 특히 매우 파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순수 고고학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다른 낭만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고대의 폐허를 어떻게든 복원시키려는 탐구자세를 보였으나, 콜로나는 그러한 폐허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성찰을 아끼지 않았으며, 낭만적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림 1> 폴리안드리온의 폐허, 프란체스코 콜로나, 1499

이러한 공상소설의 몇몇 특징 있는 요소들은 필라레테(Filarete)라는 안토니오 아베리노(Antonio Averlino)의 논문인 Trattato d'architettura(1451-1465)에서 또한 발견된다.14) 그는 1464년에 이상

8) 앞의 책, p.184.

9) 그는 아마도 비트루비우스처럼 10권의 책을 쓸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7권까지 현재 출간되었고, 이후 8권(로마의 주둔지로서 포진법)은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다.

10) Tutte l'Opere d'Architettura et Prospettiva, bk. iii, ch. 4. Blunt, Anthony,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론, 조항순역, 미진사, 1993, p.217. 재인용

11) 1400년대에 베니스에서 나온 유일한 예술서적으로 공상소설이다.

12) 소아시아 서남부의 고대도시, Mausoleum의 소재지.

13) Blunt, Anthony, 앞의 책, p.62.

도시인 스포르진다(Sforzinda)의 건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상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중세도시가 신의 나라로서 구체화된 까닭으로 이상적이었던 반면에, 르네상스의 도시는 이상적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내집된 성형을 지닌 원과 넓은 광장 중앙에 교회가 위치한 것이 기본 모티브이다. 그는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적 혹은 사적 건축물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알베르티의 도시 문제를 언급한 유희성(pleasure)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sup>15)</sup>

세 번째는 실제적인 설계에서 고대로의 회귀이다. 팔라디오(Andrea Palladio)는 그의 저서에서 세를리오가 그의 건축서를 쓴 방식에 따라 고대의 모델에서 나온 건축이론을 제시한 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당시의 건축물에 고대 건축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런데 다른 저자들의 경우와 달리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이미 건설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四圓柱式이라는 로마풍의 집을 개진함으로써 중앙의 우세한 장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했고, 1층 평면의 主모티브로서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비트루비우스의 다섯 종류의 아르티움 중의 하나로서 특히 이 형식을 좋아한 이유는 그 자신이 완벽한 형태라고 여겼던 정방형이었기 때문이고, 환원적 입장에서 단순 기하학적 형태의 선호로 이어진 것이다.<sup>16)</sup>

다른 관점에서 팔라디오는 교회의 파사드를 해결하려고 커다란 신전 정면에서 페디먼트의 일부가 양쪽 아일을 덮도록 설계하였다. 즉, 파사드는 페디먼트가 전체 폭을 걸친 것과 그 위에 회중석의 폭과 일치하는 작은 것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이중 페디먼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 중의 하나는 불완전한 모습을 띤다. 이러한 두 개의 페디먼트를 사용한 점은 무엇보다도 로마시대의 판테온이라는 가장 신성한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하나의 페디먼트가 주랑현관 위에 올려져 있으며, 한편 그보다 약간 뒤에 있는 또 하나의 페디먼트는 로툰다(rotunda)에서 돌출한 아택에 붙어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페디먼트를 가진 판테온의 실측도는 두 장의 도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 건축사서에 있으며<sup>17)</sup>, 또 다른 것은 벌링턴(Burlington)에 의해 출판된 일련의 대륙장에서도이다. 이러한 二重의 박공은 물론 고전적 디자인에 속하는 것으로 사려된다.<sup>18)</sup> 팔라디오는 고전적 법칙의 권위에 기초한 건축설계의 절대적

인 명석함을 갈망했던 것이다.

르네상스시기는 건축논문을 통한 이론적 관점에서는 고대 이데아에 대한 사색의 원류였으며 건축물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이론적 접근의 정당성을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끌면서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르네상스 시기를 바탕으로 이후로 환원적 사고원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첫째는 이전에 있었던 樣式에 대한 모방적 입장에서 복고적 성향이다. 둘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초적 형식으로 환원하려는 성향이다.

### 3. 환원성 원리의 사고원리와 구성형식

#### 3.1. 양식으로의 환원성

콜린스는 형태의 회화성과 관련하여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알려진 건물의 종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각각 고대 사원의 재건, 고대 사원의 유적, 이탈리아의 전원을 특징 지워주는 주택들로서, 환원하자면 고대의 영광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건물, 고대의 쇠락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이상화된 전원 생활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건물이다. 이것은 바로 고대의 환원적인 입장에서 복고주의적인 형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양식으로의 환원은 양식으로의 복고였다.<sup>20)</sup> 환원적 복고주의는 9세기경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의 로마건축 부흥, 르네상스 시기의 부활, 1750년 이후에도 환원적 의미에서 이러한 그리스, 로마, 고딕, 또는 르네상스 건축을 하나의 대안으로 여겼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대는 명백하게 고대 양식과 수법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영감의 순수한 근원이 되는 시기로의 복귀에 의해서만 훌륭한 현대 건축이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관념론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콜린스는 새로운 시대의 건축가들은 네 가지 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sup>21)</sup>, 이 중 두 번째는 고대로의 환원적 입장에서의 주기성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중세의 환원적 입장에서 복고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서 그리

18) Wittkower, Rudolf, 앞의 책, pp.172-179.

19) Collins, P.,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이정수의 역, 태림문화사, 1989, pp.56-57.

20) 그리스는 과학, 철학 등의 원천으로 간주되므로 그리스 복고는 박물관, 대학 등의 건물에 채용되었다. 로마는 대제국의 이상과 공화정의 미덕을 갖춘 것으로 여겨져 제퍼슨과 나폴레옹이 로마복고 양식을 선택했다. 피렌체는 상업활동의 중심지였고 자본주의적 기술의 발원지이므로 공장, 사무소, 창고, 주택, 신사들의 클럽 등이 르네상스복고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Broadbent, G.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이진섭의 역, 세진사, 1995, p. 26. 이러한 양식으로의 환원을 차이는 있지만, 연속적 계승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즈키 히로유키, 건축의 7가지 힘, 양상호역, 도서출판 국제, 1999, pp.145-151.

21) 첫째로 자동적으로 진화한다는 전통적인 古典 哲學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로, 그들은 초기의 그리스나 로마, 르네상스 건축을 복고할 수 있었으며, 셋째로, 그들은 풍토나 지질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인 전통에 소원한 고전 건축보다는 중세 국가 건축의 복고를 희망하는 開拓者들과 결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축을 신중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자들과 결합하였다. Collins, P., 앞의 책, pp.58-60.

14) 구상을 폭넓게 한 점, 도시의 건설상을 장관을 이루는 구경거리처럼 화려하게 묘사한 점, 점성술상의 관측과 일치되는 시간을 택한 점, 고대에 대한 열렬하면서도 무비판적인 열광 등은 이 두 가지를 서로 유사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앞의 책, p.67.

15) 알베르티는 도시의 문제에 있어서 네 가지 독특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욕구(desire)와 유희(pleasure), 드로잉(drawing)과 텍스트도시구조의 관계성이다. Choay, Françoise, 앞의 책, pp.176-178.

16) Palladio, Andrea, 앞의 책, 2서 그림 23. Wittkower, Rudolf, 르네상스건축의 원리(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이대암 역, 대우출판사, 1997, pp.151-152.

17) Issac Ware에 의한 영어판 건축사서에는 반쪽이 포티코 내부의 구조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쪽은 입면을 보여주고 있다. Palladio, Andrea, 앞의 책, 그림 LII, L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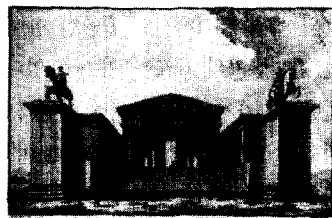
스나 로마의 복고와 중세 고딕이나 르네상스 복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나 로마의 복고는 건축이론의 전체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진화적인 관점이고, 중세 고딕이나 르네상스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일원적인 복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전자가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에는 지배적 교의였던 반면에, 후자는 바로크 시기를 전후해서 유행처럼 일어났다. 이러한 밑바탕 하에서 이들에 대한 내재된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주기적 진화의 추구

주기적 진화의 추구는 그리스, 로마 중에서 건축역사의 특정시기를 신봉하는 경향으로, 전체 건축역사에 있어 주기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먼저 그리스의 건축에 대한 이 시기의 첫번째 영향은 요소에 관심을 갖거나, 원형 건물과 같은 그리스의 구성적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었다. 조셉 윌트의 그리스 신전이 입지하는 대지의 선정에 대한 찬사가 있었고, 후자의 경우 원통형의 형태를 현대적 요구에 맞게 보통 반쪽의 원형건물이 사용되었다. 또한 가장 대중적인 구성의 모델은 파르테논으로 19세기초에 이르러야 지어진 신전 중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파르테논의 완벽함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았다.<sup>22)</sup> 이것은 르네상스시기부터 이어지는 고대의 순수함과 완벽함으로 여기는 절대적 교의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다른 양상으로서 그리스 복고(Greek Revival)는 복고주의를 판단케 하는 다른 소견들보다, 복고주의가 다양한 지역적 상황, 폭넓은 문화적 변화, 그리고 전통적인 건축적 신념과 관련된 상충된 모티브들의 복합적인 혼합의 결과가 아닌 형태에 대한 단순한 선호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sup>23)</sup> 이러한 그리스 복고주의는 1758년 출간된 르 로아(J. D. Leroy)<sup>24)</sup>와 스튜어트(Stuart)와 레베트(Revet)의 저서<sup>25)</sup>가 출현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그림 2>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의 유적 도판, 르 로아, 1758

22)1823년에 에버딘 경과 같은 열광자는 파르테논이 古代의 建物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1855년 퍼거슨 '建築의 歷史(History of Architecture)'에서 파르테논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였고, 이 당시 고딕 복고주의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러스킨(Ruskin)이나 비올레 르 뉁(Viollet-le-Duc)조차 파르테논에 경의를 표할 만큼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1829년 도날드슨(T. L. Donaldson)은 정확한 측량으로 파르테논의 기둥이 비트루비우스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해 냈다.

23)앞의 책,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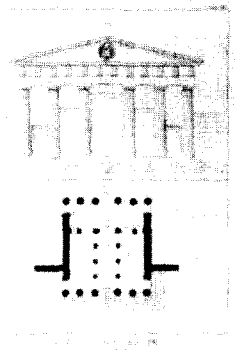
24)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의 유적(Ruins of the Most Beautiful Monuments in Greece)가 주저서이고, 그는 브롱델(J. F. Blondel)의 제자로서, 그는 이어 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의 건축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또한 이 아카데미의 사료편찬원이었다. 덧붙여 그는 고대에 건조된 배를 모델로 한 해양건축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Wiebenson, Dora Intro. & catalogue, The Mark J. Millard Architectural Collection Vol. 1: French Books, National Gallery of Art, 1933, p.299.

25)아테네의 고적(Antiquities of Athens), 1762.

르 로아의 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역사(history)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고대 그리스의 건축이론에 관한 것이다. 역사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주로 그리스의 유적에 대한 묘사이고, 두 번째는 미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축의 원리에 관한 논의이다. 이론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 건축의 질서와 오더들의 비례에 관한 전체적인 의문점들이 새롭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그의 주요 사항은 그리스 건축 전통의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르네상스 시기와는 달리 유적에 대한 예술적 묘사에도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그림 2>.

이러한 경향은 年代를 알 수도 없었던 일리시스(Eleusis)에 의한 사원<그림 3>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헬레니즘 유적을 실은 스튜어트와 레베트의 저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sup>27)</sup>

로마의 유적에 대한 연구와 향수는 부유한 귀족들이 대여행, 아카데미 학생들의 연구와 중요한 몇 권의 서적<sup>28)</sup>을 통하여 퍼져나갔다. 이 중 중요한 인물로는 클레리소(Charles-Louis Clerisseau)<sup>29)</sup>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로마 오더와 그 시대의 주거와의 연관성과 유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로마 사원과 역사적인 기념물에 대한 보전의 관점을 피력하였다<그림 4><sup>30)</sup>. 로마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림 3> 일리시스 사원, 스튜어트와 레베트, 1762



<그림 4> 님프 고적 표지, 클레리소, 1778

26)Wiebenson, Dora Intro. & catalogue, 앞의 책, pp.299-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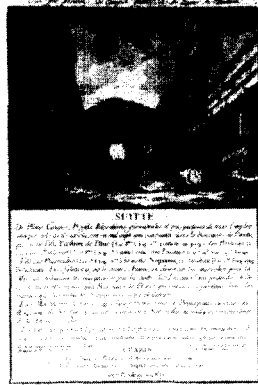
27)그들의 저서 아테네의 고적(Antiquities of Athens)은 1762년에 출간되었다. 1권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 건축으로 분류하는 리시크라테스(Lysicrates)의 코라직 모뉴먼트(choragic monument)가 있고; 나머지는 2개의 로마문, 줄리어스 시이저(Julius Caesar)의 바람의 탑(Tower of the Winds)과 하드리아닉(Hadrianic) 열주(colonnade) 등의 헬레니즘적인 기념비의 수집과 기원전 8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을 실고 있다. Collins, P., 앞의 책, p.81.

28)그 첫 번째 책은 1757년에 2권이 로버트 우드(Robert Wood)에 의해 출판된 팔미라의 유적(Ruins of Palmyra)과 발백의 유적(Ruins of Baalbek)인데, 팔미라(Palmyra)와 발백(Baalbek)에 있는 광범위한 로마 유적의 생생한 풍경을 훌륭하게 새긴 일련의 판화와 실제 측량한 그림을 실었다. 그것들은 건축가들이 로마제국의 다른 영토에서 로마 건축과 그 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부분과 로마 건축사이에 존재하는 多樣性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하였기 때문에 중요하였다. Collins, P., 앞의 책, pp.65-66.

29)보프랑의 제자인 클레리소는 1749년에 로마대상을 획득하였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을 이탈리아에 머무르면서 고대유적에 대한 스케치와 탐구를 하였다. 그는 Robert Adam과 함께 스팔라토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Wiebenson, Dora Intro. & catalogue, 앞의 책, p.119.

30)첫 번째는 스팔라트로에 있는 디오클레티안 황제궁의 유적이 있다. 두 번째인 님프 고적(Antiquities of Nime)의 중요성은, 그것이 유럽인들에게 그

관심은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sup>31)</sup>을 다룬 것들이었다.<sup>32)</sup> 1764년 출간된 듀몽(G. M. Dumont)<sup>33)</sup>의 패스툼의 평면, 단면 그리고 입면의 변천 과정(Sequence of Plans, Sections, Elevations of Paestum)이다. 2년 후에 출간한 듀몽의 저서는 로마 유적에 대한 상세한 실측과 함께 헤르쿨라네움과 베수비우스 그리고 남부이탈리아의 지도까지 그렸다. 그의 저서의 표지는 고대 로마 유적에 대한 폐허의 잔상을 표현하므로서 낭만적 향수를 자아내고 있다<그림 5>. 이러한 유행은 영국의 니콜라스 홀스무어(Nicholas Hawksmoor), 콜린 캠벨(Colen Campbell), 존 우드(John Wood)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sup>34)</sup>



<그림 5> 저서 표지, 듀몽, 1764

이러한 그리스, 로마 복고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데, 르네상스를 계승하여 전체적 교의로서 고대에 대한 단순함에 대한 존중, 형태의 명료함, 요소의 합리적 배치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고대 유적에 대한 유행적 사고의

들 자신들의 자국 내 유적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기원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750년대에 유일하게 로마와 古典建築에 관심을 가진 人類學的 論文 중의 하나이다. Collins, P., 앞의 책, pp.62-73. Wiebenson, Dora Intro. & catalogue, 앞의 책, p.119.

31)이탈리아 서남부 나폴리만 근처에 있던 고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함께 매몰되었다.

32)모리츠(Karl Philipp Moritz, 1756-93)도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이것을 다룬 저서로는 코힌(Cochin)과 벨리카드(Bellicard)에 의해 출판된 헤르쿨라네움 마을의 고전에 대한 고찰(Observations upon the Antiquities of the Town of Herculaneum)과 시실리의 왕에 의해 사적으로 출판된 적이 있는 헤르쿨라네움의 고적(Antiquities of Herculaneum)의 공증판이 있다. 통일성있게 폼페이의 빌라를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은 리차드 생-논(Jean-Claude Richard l'Abbé de Saint-Non, 1727-91)이다. 그의 책은 세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볼륨에서 나폴리와 헤르쿨라네움과 폼페이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베수비우스(Vesuvius) 화산폭발과 폼페이 발굴 등의 새롭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Kruff, Hanno-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214.

33)Gabriel Pierre Martin Dumont은 1740년대의 로코코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전이되는 시기에 로마에서 공부한 프랑스 건축가의 세대에 속한다. 1737년에 로마대상을 받았고, 1742년까지 Ecole de Rome에 있었다. 이후 몇 년을 이태리에 있으면서 그는 그곳의 고대와 현대건축물을 조사하였다. 덧붙여 그는 로마와 플로렌스, 볼로냐의 아카데미 회원이었고, 파리에 돌아와서는 건축아카데미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Wiebenson, Dora Intro. & catalogue, 앞의 책, p.168.

34)이러한 浪漫的 描寫는 파니니(Pannini), 피라네시(Piranesi)와 같은 예술가들에 의해 그려진 많은 유적의 그림으로 인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것은 첫째로 분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건물의 역사적인 연구와 實證 資料로 취급하는 考古學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로, 그것은 그 때까지 실질적인 가치의 부재로 인해 간과되었던 수많은 비트루비우스 규칙에 대한 현학적인 준수를 고무시켰다; 그리고 셋째로, 새로운 건물에 요구되어지는 목적과 아무리 소원한 경우라도 로마 건축의 구성을 모방하는 유행을 발전시켰다. 앞의 책, p.57.

회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로마 건축의 복고는 유적 혹은 폐허에 대한 낭만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곧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 경향에 반대되는 유행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적용에 있어 그리스 복고에 비해 퇴보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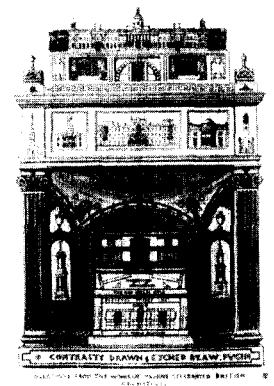
(2) 일원적 환원

계몽주의시대에 후기 르네상스시기의 이중성을 개선하려는 낭만적 욕망이 사회제도와 가치, 예술과 건축을 포함한 중세의 재발견과 재인식으로 이어졌다.<sup>35)</sup> 그러나 또한 다른 복고보다 가장 합리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고딕 복고주의 이론이다.

복고의 건축론은 항상 세계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구축된다.<sup>36)</sup> 우선 고딕의 복고는 이러한 관점 외에 자체 형태가 가지는 상징적 이미지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공공건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종교적 신비주의의 부활을 들 수 있다. 이는 종교적 근거를 반대한 인문주의를 밀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는 이 시기에 유행한 낭만적 정신을 표현하기에 필요하였다.<sup>37)</sup>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궁(Palace of Westminster)을 위한 콤포티션에서 원칙을 고딕적인 성향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퓨진(A. W. N. Pugin)과 존 러스킨(John Ruskin)은 반대의 관점이지만, 고딕 이념을 표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대 유적에서도 색채의 흔적이 있지만, 고딕의 多色裝飾에 대한 관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국의 고딕 복고주의 건물은 압도적으로 색채장식이 되었다. 이러한 다색장식은 주로 르네상스와 고딕의 복고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son)이 언급한 것처럼 고딕의 복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적인 정확성과 구조적인 합리성에 있었다. 이것은 곧 고딕건축이 가지는 진실된 표현과 사실적인 표현을 나타내었고, 구조적 이상을 나타내게 된다. 퓨진의 저서에서 그는 고딕 건축이 유일하게 진실된 건축이라고 주장한다<sup>38)</sup><그림 6>.



<그림 6> Contrasts의 표지, A. W. N. Pugin, 1841.

35)Gelernter, Mark, Sources of architectural form: A critical history of Western design theo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pp.200-201.

36)스즈키 히로유키, 건축의 7가지 힘, 양상호역, 도서출판 국제, 1999, p.149.

37)앞의 책, p.165.

38)첨담 혹은 기독교 건축의 진정한 원리(True Principles of Pointed or Christian Architecture)와 기독교 건축의 복고에 대한 변명(Apology for the Revival of Christian Architecture, 1843)이다. 전자의 것에서는 형태들이 오로지 구조적 법칙에 따라 추출되었다는 개념을 일관되게 서술한 최초의 저서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주된 디자인 법칙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건물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편리함, 構造, 妥當性이 필연적인 것이며, 둘째, 모든 장식은 건물의 本質의 構造를 풍요하게 하는 것으로서만

다른 한편 르네상스(Renaissance)<sup>39)</sup>복고(Revival)는 의미자체에서 재 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복고 자체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들은 다양한 창의 형태, 장식체계의 불구속, 평면체계의 자연스러움, 구성형태의 혼합을 자연스러움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덧붙여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들은 당시의 시대정신 하에서 역사적 전례를 추구하게 되는데, 영국에서의 팔라디아니즘이라든지, '앤 여왕 복고(Queen Anne Revival)'라 불리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당시의 유행적 성향과 함께 고대를 계승한 르네상스양식의 자연스러움에 기인하게 되고, 건축 디자인의 장식처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차이점은 르네상스 복고는 표면적으로 그리스나 로마 복고주의와 똑같이 보이는 건축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르네상스 복고는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고딕 복고와 르네상스 복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원적 환원으로 묶여지는데, 이러한 환원적 성향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이전에 적용된 복고적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덧붙여 시기적 상황과 같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딕 복고의 경우 자체의 상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과학 혁명 이후 합리적 기능적 사고와 사회주의적 이념에 맞추어 構造的 合理主義 혹은 古典的 合理主義 등의 부류로서 나타난다.

둘째는 영향에 있어 아주 다른 이유이지만, 여하튼 이들 복고는 다색 장식을 특징으로 한다. 건축적 형태가 필수적으로 구조적 형태라고 믿었고, 따라서 한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때는 구조적인 재료로부터 색깔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sup>40)</sup>

마지막으로 고딕 복고는 이미지가 가지는 종교적 상징성을 나타내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르네상스 복고는 건축적 어휘에 대한 자연스러움과 적용의 포괄적 성질을 특성으로 들 수 있다.

### 3.2. 원초적 형식으로서의 환원성

두 번째 특성인 원초적 형식으로서의 환원성은 양식적인 환원과는 다른 자연의 원초적 형식으로 회귀하려는 사고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연의 모방(미메시스)으로서 환원적인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자연의 작용방식의 모방을 설명한 데모크리토스를 비롯한 고대 이론을 통하여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예찬을 통하여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인간적 본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를 한다.

둘째는 원형의 환원으로서 원형적 이미지를 가진 주거 혹은 신전에 대한 것으로 회귀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비트루비우스 이후 필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고딕을 찬양하는 종교적, 민족적 논증을 열거하고 있는 데서 다시 合理主義者적 見解를 주장하였다. 건축적 기술은 필요한 구조를 표현하고 실제화시키는데 있는 것이며, 그것을 빌어온 특징들을 감추는데 있지 않다고 기술하였다. Collins, P., 앞의 책, pp.98-104.

39) 근대적 의미로 '르네상스'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쿠쟁(Jean Cousin)의 건축의 특성(Genie de l'Architecture(1822))에서이다.

40)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것은 뒤에 다른 復古的 性向에도 나타나기도 한다. 앞의 책, pp.112-115.

레테, 스피나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탐구를 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로서 로지에를 들 수 있다.

#### (1) 자연 모방으로서의 환원

인간은 태고적부터 자연에 대한 숭배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즉 감각적인 성격과 우주적인 성격이다. 전자의 감각적인 성격은 일종의 유형적인 평가였다. 후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무형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었다.<sup>41)</sup> 이러한 사고는 창조성을 낳을 수 없다는 통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모방은 곧 예술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알베르티의 해석으로는 예술이란 자연의 외관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모방하는 것이다.<sup>42)</sup> 곧 미는 자연의 모방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소우주로서의 인간 신체는 비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로서 적용되었다. 인체에 대한 적용은 비례의 적용으로 나타나는데, 프란세스코 조르시오는 보다 적극적인 예시를 보여주었다.<sup>43)</sup>

자연의 진실된 모방(true imitation of nature)<sup>44)</sup>이라는 환원적 입장을 고수한 건축사가인 휴 어너(Hugh Honour)와 자연을 최고의 형태의 완전함에 비유하고 자연의 원형은 미의 완벽한 모델<sup>45)</sup>로서 여긴 조슈아 레이놀즈경(Joshua Reynolds) 등이 이러한 사고의 이론적 전개를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자연 탐구방법에서 출발하여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고를 전개시켰다. 가베트(Edward Lacy Garbett)는 자신의 저서에서 원시주의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는데, 퀸시를 추종하면서 그는 원시건축의 '자연적' 우아함을 찬미하였다<sup>46)</sup>.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연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경험하고,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연 파괴적 상황을 타파하려는 생태 건축과 환경 건축에 대한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2) 원형으로서의 환원

원형(archetype)<sup>47)</sup>은 합리적인 사유의 구성물, 창조된 것,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형태라는 의미를 가

41) Antoniadis, Anthony C., 건축시학(Poetics of Architecture), 김정준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235.

42) Tatariewicz, W.,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효주역, 미진사, 1993, pp.311-316.

43) 이들의 이러한 사고는 물론 여기서 언급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여하튼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담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44) 18세기의 이론가들은 자연이란, 자연적인 것(the natural)을 의미했고, 이는 실재하고 본질적이며 진실하고 순수하며 쾌적한 것을 의미한다. Broadbent, G. 앞의 책, p.22.

45) de Zurko, 기능주의이론의 계보, 윤재희의 역, 세진사, 1991, pp.112-113.

46) 그의 저서 Rudimentary Treatise on the Principles of Design in Architecture는 Ralph Waldo Emerson, James Fergusson, 그리고 Quatremere de Quincy 등의 저술에 영향을 받았다. 앞의 책, pp.150-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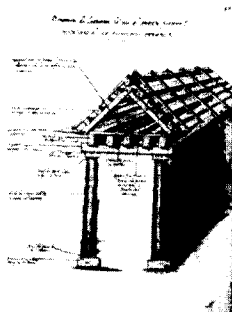
47) 이것의 어원은 모델, 원본을 뜻하는 그리스어 archetupos에서 기인한 것으로,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類型, 사물들의 이상을 뜻하는 것이다.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원형이란 다른 것들에 관련해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념을 뜻한다.

지고 있다.48) 이것은 특히 건축에서 근원의 탐색과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건축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본질(essence)를 찾으려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건축의 본질(the essence of architecture)을 찾으려는 시도이다.49) 이러한 원형의 시작은 주거라는 인간의 원초적 쉼터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시대가 변해오면서 원형적 이미지를 신전이나 다른 것을 통해 얻었다.50)

아마도 이러한 원형으로의 주거에 대한 환원적 사고는 필라레테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주택의 기원에 대한 아담의 원시오두막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오두막의 건설과정에서 첫 번째가 바로 위 부분이 갈라진 나무기둥의 설치이고, 이 위에 지붕과 보를 설치하였다. <그림 7> 그는 후에 나무 기둥은 기둥으로 발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직립재의 높이는 인간의 신장과 관계되어 설정되었다. 그러나 필라레테는 로지에가 했던 것처럼, 모든 건축의 표준으로서 최초의 오두막을 주장하지는 않았다.51)



<그림 7> 아담의 원시오두막, Filarete



<그림 8> 원시오두막, 스피니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교의는 플로렌스 아카데미의 회원인 스피니(Gherardo Spini)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오더의 원형(prototype)으로서 세밀하게 설명하였고, 덧붙여 나무로 된 보와 지붕의 여러 형태로서 원시 오두막을 디자인하였다.52) 또한 서인디안 식민지로부터 사례를 인용하여 최초의 원시 오두막에 대한 인식을 전개시킨 로브코비츠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53) <그림 8> 이러한 원형으로의 환원은 건축법적 특성을 함께 가지는 가구식 구조로서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다.

원시 주거에 대한 견해는 로지에(Marc Antoine Laugier)에 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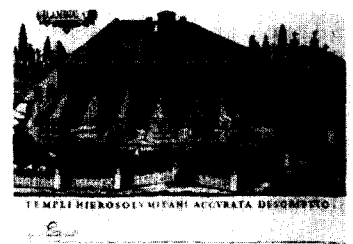
러 완성된다. 그의 저서54)는 원시 주거의 개념과 함께 건축의 원천으로 회귀할 것을 권하였고, 원시 오두막(primitive hut)의 이념을 피력하였다.55) 이러한 원시성이 곧 완벽함과 동등한 것으로 여겼고, 자연적 미덕의 참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이 원시오두막을 현장을 확인하고 그린 것이 아니라, 건축의 원형적 특성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를 갖는다.56) 그의 영향은 밀리자(Francesco Milizia)에게 이어지면서, 건축을 원시적 원형을 모방으로 여기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건축을 원형을 위한 자연에 기초한 두 가지의 원리로서 그는 원시 오두막의 모방으로서 그리스 원리와 숲의 모방으로서 고딕의 원리로서 실존을 강조하였다.57) 그는 양식의 모방을 통한 원형적 원시 오두막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로지에가 믿었던 것처럼 샤머스트(Ribart de Chamoust)도 그의 저서에서 원초적 오두막 형태에서 혹은 자연에서 끊임없이 기능적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초목의 잎사귀로 휘감겨 있는 3개의 나무기둥을 포함한 자연요소들을 관찰하였다.58) <그림 9>. 또한 원시오두막의 원형을 자신의 비례체계와 건축형식 요소를 위한 전형으로 사용한 니콜라 마리 포탱(Nicolas-Marie Potain)과 카리브 오두막에 기초한 쟈퍼의 이론도 그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종교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상징적인 성서와 신전에 대한 회귀로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Ezekiel)의 관점에 대한 올바른 주석과 예루살렘사원의 재생을 설명한 빌랄판도(Jesuit Juan Bautista Villalpando)와 원시 오두막과 유사한 기능으로서 모세의 장막(tabernacle)을 그 모델로 적용한 영국의 존 우드(John Wood the Elder)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전적 모델로서 솔로몬 신전의 해석을 내용으로 구성한 로브코비츠(Juan caramuel de Lobkowitz) 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9> L'Ordre François trouvé dans la nature, Chamoust, 1783



<그림 10> 성서의 해석을 통한 신전복원, 로브코비츠

48) 원형 개념의 원천은 외부 사물을 관찰하고 그 성질이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를 축적하는 일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그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조합들에 의해 형성된 복합적인 관념이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 또는 예술에 적용되는 개념들이 존재한다. 콩디악에 따르면, '예술의 모델은 더 이상 최초의 발명가들의 정신 바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Clement, Elisabeth의 3, 앞의 책, pp.223-224.

49) Broadbent, G. 앞의 책, p.20.

50) 이것의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대학교육에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원시 혹은 민속주거 등의 제작이 그것이다.

51) Kruff, Hanno-Walter, 앞의 책, p.52.

52) 앞의 책, p.52, p.96.

53) 앞의 책, p.226.

54) 건축수필(Essai sur l'architecture, 1753년)과 건축개론(Observations sur l'architecture, 1755년)이라는 두 권의 建築 批評書를 저술하였다.

55) Laugier, Abbe Marc-Antoine, An Essay on Architecture, Translated & Intro. by Wolfgang and Anni Hermann, Hennessey & Ingalls, Inc., 1977, p.12.

56) 이상해, 로지에와 이성주의 건축, 건축사학의 건축이론 III, 건축과 환경 8804, pp.82-97.

57) Kruff, Hanno-Walter, 앞의 책, p.204.

58) 그의 저서는 L'Ordre François trouvé dans la nature(1783)이다. 앞의 책, p.156.

## 4. 결론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고과정에서 환원적 성향을 갖는다. 과거의 회상, 기억과 향수라는 것에서 현재를 또한 정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은 곧 예술적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함께 형태의 조작에 있어서도 환원성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즉, 이러한 환원적 성향은 사고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원리이고, 체계화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환원하는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모방하고, 과거를 들추려는 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크게 과거에 있었던 양식에 대한 모방과 원초적 형식의 회귀로 나타났다. 양식에 대한 모방은 주기적인 순환을 이루면서 진화하는 경향과 그 당시의 시기적 상황과의 결합을 통한 일원적 환원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진화경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형태의 단순함, 명료함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났고, 일원적 환원의 경우는 시대적 적응과 함께 합리주의적 사고와 다색 장식의 특성, 고딕의 종교적 상징성과 르네상스 건축어휘의 포괄적 적응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났다. 원초적 형식으로서의 환원은 자연 그 자체가 순수함과 단순성의 인식에 그 가치가 있고 나아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원형적 이미지로서의 형태에 대한 사고의 회귀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엘리트 예술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도 나타났다. 건축가 없는 건축물과 예술 평론가인 리글이 언급한 민속예술과 上下 藝術의 구분 등에서 나타나는 버나클러한 성향도 포함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井上充夫, 건축미론, 임영배외 1역, 도서출판 국제, 1994.
2. 스즈키 히로유키, 건축의 7가지 힘, 양상호역, 도서출판 국제, 1999.
3. Antoniadis, Anthony C., 건축시학(Poetics of Architecture), 김경준역, 도서출판 국제, 1994.
4. Blunt, Anthony,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론, 조항순역, 미진사, 1993.
5. Clement, Elisabeth의 3, 철학사전, 이정우역, 도서출판 동녘, 1996.
6. Collingwood, R. G., 상상과 표현(The Principles of Art), 김혜련역, 도서출판 고려원, 1996.
7. Collins, P.,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이정수의 역, 태림문화사, 1989.
8. Tatarkiewicz, W.,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효주역, 미진사, 1993.
9. Wittkower, Rudolf, 르네상스건축의 원리(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이대암 역, 대우출판사, 1997.
10. Alberti, Leon Battista,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Joseph Rykwert의 2 translated, The MIT press, 1989.
11. Choay, Françoise, The Rule and the Model, The MIT Press, 1997.
12. Gelernter, Mark, Sources of architectural form: A critical history of Western design theo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13. Kaufmann, E.,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Dover Publishers, 1965.
14. Kruff, Hanno-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15. Laugier, Abbe Marc-Antoine, An Essay on Architecture, Translated & Intro. by Wolfgang and Anni Hermann, Hennessey & Ingalls, Inc., 1977.
16. Palladio, Andrea, The Four Books of Architecture(1570), Issac Ware, Dover Publications, 1975.

17. Wiebenson, Dora Intro. & catalogue, The Mark J. Millard Architectural Collection Vol. 1: French Books, National Gallery of Art, 1993.
18. 이상해, 로지에와 이성주의 건축, 건축사속의 건축이론 III, 건축과 환경 8804.
19. 이승우, 건축형태의 변천과정과 구성원리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박론, 1998.

<접수 : 2000. 11. 2>